

일본 양봉업계 大家

모리카와健康堂(株)를 찾아서(完)

〈전호에서 계속〉 필력은 태극기를 일본에서, 더욱이 동경이 아닌 이 꾸마모토(熊本)에서 보는 느낌이란 말할 수 없는 호뜻함으로 다가왔다. 다리를 건너 모리카와(森川) 건강당주식회사라는 마지막 회사정문 입간판이 보이

차는 미끄러지듯 공장본부 건물 앞에서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언제 와 있었는지 동경에서 보았던 모리카와 사장이 "모리카와건강당 공장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나를 반갑게 맞는다. 동행인 권과장은 공장 안내직원인 듯한 사람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내게 오늘의 모리카와건강당 고우사(高尾)공장 안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모리카와건강당 고우사 공장은 1996년에 완공된 최첨단 건축법으로 식품·제약공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 공정준수조건에 따라

지어진 건물로, 예를들면 공기통풍 콘트롤시스템이 있어 공기가 나오는 것은 자유로나 여러가지 세균등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밖의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정면에 보이는 것이 가공공장이고 좌측의 건물은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로 손님접대 및 고객 상담소로 이용되며 자세한 것은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한다.

안내 받고 들어선 사무실에는 크지 않은 책상들과 집기들이 손

님이 와서가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돼 있어 평상시 생활화돼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공장내부를 안내하게 된 요네야마(米山) 계장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학자 같은 분위기가 흘러 내 느낌에는 아마 대학원생의 연구원으로 보였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내 전 옷을 위생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탈의실은 약 40-50여개의 사물함이 있었고 요네야마 계장은 나의 신장을 물어보더니 한 사물함을 지정해 주었다. 사물함 속에는 위생모자·위생복·마스크·신발·각반 등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위생복 복장을 갖추고 문을 나서니 모리카와 사장이 내게 다가와 여러가지 모르는 것은 질문하리면서 권과장과 요네야마 계장에게는 잘 안내하라고 부탁했다.

오른쪽 문을 열자 복도가 나타났다. 요네야마 계장은 총괄적인 설명으로 이곳은 본 공정실로 들어가기 전의 단계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센서가 장채돼 있어 공정실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소지품의 살균 및 소독을 한다고 한다. 그 복도를 지나 다음 문에 이르자 여기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먼지 및 이물질은 떨어내는 에어샤워기(Air Shower)라고 설명했다. 나와 요네야마 계장이 먼저 들어가고 권과장은 나중에 들어왔다. 건강식품회사에 자동센서 살균기·자동센서 소독기·에어샤워기? 역시 일본다운 시스템이다. 보통 건물이 아니었다.

먼저 프로폴리스 공정을 설명하고, 로얄제리 공정은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에어샤워기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프로폴리스 작업공정실. 프로폴리스 원



가보농산(주) 대표 김희성(본협 이사)

료가 브라질·중국·칠레 등으로 부터 들어오면 우선 사람이 직접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은 선별한 프로폴리스 원료를 에탄올에 넣어 프로폴리스의 고형분을 추출하여 캡슐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 기계가 로타리에 버포레타(Rotary evaporator)라는 것인데, 품질규격을 정확히 하기 위해 농축하는 것이라는 등 수많은 기계들

의 역할과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 주었다.

다음은 로얄제리 공정실로 먼저 호주·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로얄제리는 동결건조건조기(Freeze dryer)에 넣어 건조 분말화하여 다른 성분들과 혼합하여 제품화하는데, 로얄제리의 경우 캡슐충진에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러 대의 로얄제리 캡슐선별기·캡슐계수기·쉬링크패키지·초고속 동결건조기 등 로얄제리가공에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지 놀랐다.

마지막으로 안내된 곳은 제품검사·연구실. 여기엔 이름 모를 수 많은 실험기들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익은 HPLC도 보였다. 문외한인 내가 우리 양봉협회 봉산물연구소에서 익히 봐온 것이어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볼 뿐이다. 웬만한 제약회사의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 연구실이었다. 이러한 곳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니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도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제품검사실을 마지막으로 고우사 공장의 전공정의 견학을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와 위생복을 벗어 놓았는데, 내가 입었던 위생복은 1회용이므로 기념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요네야마 계장의 친절에 가져가겠다고 하니 종이백에 잘 포장해 주었다.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로 안내되자 모리카와 사장이 응접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장방문 느낌이 어때냐, 공장을 방문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녹차를 마시며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털어냈다. 먼저 내가 놀란 것은 모리카와건강당(주)의 고우사(高尾)공장의 '자생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정리하자면, 이 공장에서의 주요공정은 원료분리·처리공정 과정뿐이다. 기타의 공정은 다른 공장으로 옮겨져 완제품생산 공정에 들어간다. 더욱이 이 공장에선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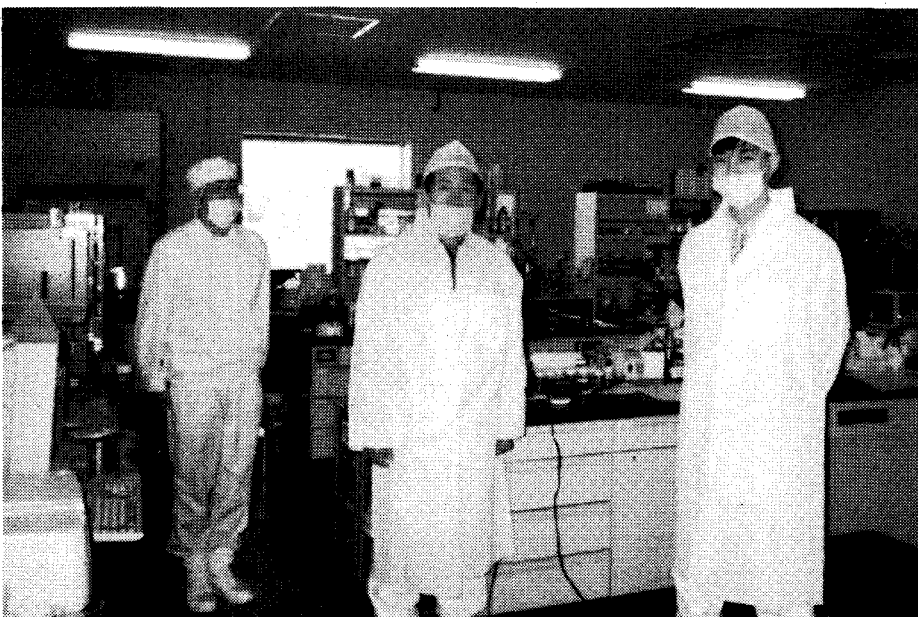
얄제리와 프로폴리스만을 전문적으로 가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말인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투자와 노력이 들어갔을까? 아무리 일본의 공장이라 해도 두 개의 품목으로 공장의 가동률을 이끌어 나갈수 있다는 것일까? 열린 이해가 가질 않는다. 가만히 살펴보면 직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나의 질문에 모리카와 사장은 작은 미소만 지은 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는 말로 대답을 가름하며 필자의 나주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하는 말이 또 나왔다.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하여 건강산업은 이념과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또한번 표명했다. 현재의 일본의 양봉산업도 그 한계가 이미 지나 버렸다고 생각한다. 단지 꿀벌을 키우고 또 벌꿀을 생산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의 흐름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 만약 모리카와도 많은 봉산물 중 벌꿀만을 고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면 아마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대부터 이미 50년 전에 로얄제리 채취기술을 연구했으며, 10년 전부터는 다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니 한국의 양봉산업도 품목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장애에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충고했다. 그래서 같은 양봉인으로서 동지의를 느끼다면서 '가보농산'의 양봉산업의 기술혁신에 도움이 돼 주겠다고 하면서 상담의 끝은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긴 세월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밖으로 나온 모리카와 사장은 공장의 이곳 저곳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꿀벌이 생산한 것을 어찌 됐든 이용하는 것이므로 "꿀벌 영혼탑"을 세워 그 곤충들의 영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탑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윽고 태극기가 필력은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념사진을 몇 컷 찍고, 그 옆에 있는 연못에서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었다.

(8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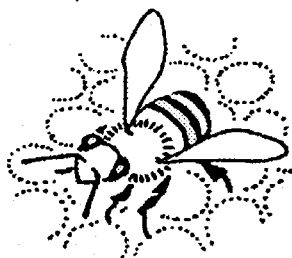


◇에어샤워를 통과해 들어선 프로폴리스 원료 추출공정실. 첨단기기장비를 사용해 제품 품질규격 정확성을 기하고 있었다.

영업안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많이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노력하며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림(중량 약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봉(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신·구형)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철

☎ (02) 481-3697~8. (夜)441-2780, FAX (02) 442-9426

벌꿀 농축시설 완비

벌꿀·화분·로얄제리 도산매 양봉기구·규격드림 전문취급

양봉이 저의 인생 전부... 15년간 신용 하나를 신조로 삼아 (평택)대동양봉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봉우 여러분께서 힘겹게 생산한 벌꿀과 화분, 로얄제리 어느것 하나 소홀함 없이 연락주시는 대로 수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동양봉원 대표 손응권

☎450-010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86-4(경찰서 앞)

☎(0333)655-5233, 665-0303(농축장)

FAX: 54-5233 휴대폰 011-422-5233(경기지회총무)